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 시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3/13(월)	3/14(화)	3/15(수)	3/16(목)	3/17(금)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3/20(월)	3/21(화)	3/22(수)	3/23(목)	3/24(금)
16구역	17구역	18구역	19구역	20구역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5지역
4/3(월)	4/4(화)	4/5(수)		
1구역	2구역	3구역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1Cu-우리어머니	3월 12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3월 12일(일), 13:30	강 당
자녀를 위한 기도	3월 17일(금), 19:40	1교실
울뜨레아	3월 19일(일), 11:40	강 당
레지오 아치에스	3월 19일(일), 14:00	대성전

● 알 림

- 3월 15일(수)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있습니다.

● 사순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3월 16일	영적 성장의 비밀	김상윤 베드로신부님

● 사순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3월 14일(화), 20:00
- 3지역/4지역/5지역(구역외) : 3월 15일(수), 20:00

● 사순시기 추천 도서

- 도서명: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내 마음의 주치의', '가시 속의 장미'
- 성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

어르신들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 대 상: 70세이상 남 녀
- 일 시: 매주 목요일 10:40, 강당
- 교육내용: 미술심리, 성경공부, 레크윌동, 만들기 등
- 학 장: 오순남 크리스티나 010-5271-1761

나눔 바자회 물품 후원

- 기간: 2월 12일~4월 2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본당 앞 마당
- 품목: 의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류, 유아용품, 잡화등
- ※ 판매가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 수익금은 구로3동 성당 신자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례 봉사자 모집

거룩한 미사에 봉사하실 신자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 해설 팀장: 신영옥 헬레나 010-6285-7480
- 독서 팀장: 백희자 스텔라 010-5314-4939
- 성인복사팀장: 하재민 베네딕토 010-8719-7594
- 반주 단장: 김가람 로사 010-4274-4105
- ⇒ 평일 반주자 모집

● 다음 주일(3/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5구역	청 소	2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3월 1일 ~ 3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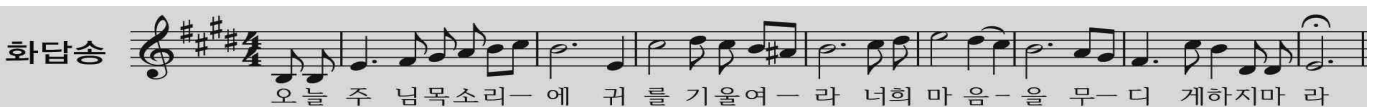
- 교 무 금 11,195,000원
- 주일헌금 5,262,400원
- 감사헌금
서만심 6만원 구상호10만원 유○○ 5만원
심진보10만원 조○○10만원 김이용10만원
김민석10만원 김시아10만원 전필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유재순10만원 김영숙 3만원
유재녀 5만원 2구역 국수잔치 10만원
14구역 국수잔치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3/12	구민서	신종구	김진수	오성환	유숙종	장익근	김성해
3/19	이인옥	심재순	장희석	김영균	김진수	김덕영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3/12	최창열	옥윤필	이계명	김영배	오광운
3/19	옥윤필	이화봉	손상민	박형순	최영만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사 형

263. 다른 이들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사형은 도덕적 차원에서도 부적절하고 형벌 차원에서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분명히 “사형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호소하며 결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64. 신약 성경에서는,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정의의 집행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지만(로마 12,17,19 참조), 권위들이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로마 13,4; 1베드 2,14 참조). 실제로 “조직화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 생활을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공권력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법권은 “법 영역에 필요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5. 교회 초기부터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사형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락탄시우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언제나 범죄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니콜라오 1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무고한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 사형을 받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사제들을 살해한 몇몇 살인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재판관에게 살인자들의 목숨을 빼앗지는 말아 달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사악한 이들에게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자유를 없애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을 살려 두고 또 그들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지 않으면서도 법에 규정된 강제 조치로 그들이 불온한 선동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평온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악행을 끊어 버리고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형벌이겠지만, 흉악한 폭력을 통제하면서도 참회의 교정책까지 제공하는데, 이것이 극형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성을 잊지 않도록 불의에 분개하십시오. 죄인들의 잔학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희열을 분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로 그들 영혼에 입은 그 죄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